

지체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의류의 디자인 모형의 개발

박 선 민* (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환경학과 석사졸업)

이 주 현 (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환경학과 교수)

본 연구의 목적은 ‘개인의 능력 보강(personal empowerment)’을 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디지털 의류를 장애인에게 적용하였을 때 그들의 신체적 핸디캡을 보완함은 물론, 능력의 보강을 이루도록 하고 장애인의 미래 일상생활 라이프스타일을 보다 풍요롭고 편리하도록 돕는 디지털 의류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이다.

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의류의 사용성 및 착용성 평가를 위한 수요 조사를 통해 장애인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디지털 의류의 디자인 시안 1종을 실물 제작하였다. 수요 조사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졌으며, 제작된 디자인 시안은 편마비 및 절단 장애인 8명과 휠체어 사용 장애인 12명을 대상으로 사용성과 착용성을 평가하기 위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. 그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‘외관’, ‘착용성’, ‘조작의 용이성’, ‘내장된 기기 위치의 적절성’, ‘물리적 편리성’, ‘안전성’, ‘관리의 용이성’, ‘유용성’의 8가지 항목별로 정성적, 정량적 분석결과를 도출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디자인 시안의 수정안을 도출하였다.

본 연구의 결론으로서,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용성과 착용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의류의 디자인 프로토타입을 편마비 및 절단장애인용과 휠체어 사용 장애인용으로 구분하여 개발하고 이를 렌더링 형태로 제시하였다.